

수요예배 및 구역 가정예배 순서지

-일 시 : 2022년 4월 6일(수) 저녁 7시00분

-장 소 :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

-인 도 : 가족 중에서

● 묵상기도 / 각 자 ● 기 원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경배찬송 / 새401장(통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 기 도 / 가족 중에서

● 주일말씀과 삶의 나눔 / 주일예배 말씀의 은혜와 삶을 서로 나눕니다.

● 성경봉독 / “사무엘하(삼하)1:5-16(p.463) 가족 중에서

● 말 씀 /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일들을 결정하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어야 합니까?

1.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게 한 사람은 누구이며, 사울은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했으며, 아말렉 청년이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5-10절)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린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한(3절) 아말렉의 한 청년이었는데(5절, 참고8절,13절) 그는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었고 병거와 기병은 사울을 급히 따르는데(6절) 사울이 뒤를 돌아보며 청년을 불러 자기 목숨이 아직 붙어 있어서 고통이 있으니 자기 곁에 서서 자기를 죽여 달라고 하여서(9절) 청년은 사울이 더 이상 살아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울을 죽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10절상). 그리고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다고 했습니다(10절하).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는 삼상31:3-6의 기록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 이 아말렉 청년은 거짓보고를 하면서 전쟁에 나갈 때 착용하고 다닌 왕권을 표시하는 장신구까지 가져와 다윗에게 아부함으로 다윗으로부터 인정과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은 거짓이나 아부와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신실함으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잠13:5, 엡4:25).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마6:33).

2.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뒤 다윗과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어떠했으며,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나타내니까?(11-12절)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 다윗은 자기 옷을 찢었고, 그 때 다윗과 함께 한 모든 사람들도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11절).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뿐 아니라 백성들과 이스라엘 족속이 죽은 것 때문에 저녁 때까지 슬퍼하면서 울며 금식했습니다(12절). 이처럼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것은 깊은 연민과 참 사랑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며 죽음으로 몰아넣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슬피우신 예수님

의 모습을 발견합니다(마23:37, 눅19:41).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마5:44). 우리는 원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며(롬12:19),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해야 하고(롬12:17),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롬12:21).

3. 다윗은 아말렉 청년을 어떻게 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3-16절)

다윗은 청년이 어디 사람인지 확인하였을 때 청년은 자신이 아말렉 사람으로서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13절). 이에 다윗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부음 받은 자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음을 책망하며(14절),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하면서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간 것’이라고 했습니다(15절).

‘외국인의 아들’(출22:21,22: 23:9 이방 나그네/신14:29 거류하는 객/신24:14 우거하는 객/신24:19 나그네/ 신24:20,21 객) 이라 함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히브리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말로서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꼭 같은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득과 특권을 부여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사람으로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의 법도를 아는 외국인으로서 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 큰 반역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여호와와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이스라엘 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 그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간다’는 말은 ‘네가 피흘림을 당하는 것은 바로 네 자신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에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알고 경우에 맞는 말(잠25:11)과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잠17:7). 말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그 입술의 열매를 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잠18:20-21).

다윗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경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치관도 세상의 가치관에 하물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변화 시키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 나눔과 기도 / 다같이

1.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잘 대응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경건한 사순절의 절기 되게 하소서.
3. 학업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미래비전도 보여주소서.
4. 유치부에 좋은 교역자를 속히 보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소서.
5. 조합과의 합의안대로 잘 마무리되고,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도 잘 되게 하소서.
6. 새로 선출된 제20대 대통령을 붙들여 주셔서 잘 통치하게 하시고, 전국동시 지방선거(6/1) 가운데도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소서.
7.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멈추어 주시고, 자유와 진리가 이기게 하소서.

● 마무리 기도 / 가족 중에서

● 파송찬양/새321장(통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 ● 주기도문 / 다같이